

# 문단 연결에 대한 인식 양상

—고1, 2 학습자들의 문단 읽기와 쓰기를 중심으로—

서종훈\*

## < 차례 >

- I. 들머리
- II. 연구방법 및 연구가설
- III. 연구결과 및 교육상 의의
- IV. 마무리

## I. 들머리

###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학습자들의 문단 연결에 대한 인식 양상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 문단 인식 양상이라 함은 텍스트에서 반드시 고려되는 각 문단의 의미 기능이나 속성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와 표현의 인식 결과를 아우르는 것이다.

문단은 불확정적인 언어 단위라 할 수 있다. 낱말과 문장과 같이 문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다양한 의미론적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미론적 측면에서도 접근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이

---

\* 경상대학교 국어교육과

처럼 형식과 내용면에서 그 명확성을 도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단은 그 이론상의 토대가 탄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대다수 문단에 대한 연구가 수사학의 규범적 지식과 이론에 그 토대를 두고 있으며, 실제로 이를 바탕으로 한 현장연구 논문들은 정형화된 한 문단 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sup>1)</sup> 이는 문단이 기본적으로 글말에서의 언어 단위라는 점과 텍스트에서 가지는 기능과 의미상의 역동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한 결과라 하겠다.

문단은 하나의 자족 단위로서 그 의미를 드러내지만, 이는 텍스트를 전제하고 있을 때라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문단은 소주제문과 뒷받침 문장들로 구성된 자족적인 의미단위이지만, 그것은 실상 하나의 완벽한 전체보다는 전체를 전제한 부분으로서의 속성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문단은 내·외적으로 문장의 연결과 문단의 연결 두 양상이 동시에 고려된다는 점에서 응집성(cohesion)과 통일성(coherence)의 문제를 모두 다룰 수 있는 언어 단위라 할 수 있다.<sup>2)</sup> 이는 문단이 그만큼 언어단위의 의미 연결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상의 융통성과 어려움을 동시에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본고의 핵심은 이와 같은 응집성과 통일성의 문제가 동시에 학습자들의 읽기와 쓰기에서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느냐에 있다. 아울러 기존의 연구와 차별적인 점은 문단의 문제를 규범적이거나 문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드러나는 문단의 양상을 탐구해 나가는 데 있다고 하겠다.

1) 줄고(2008b)에서 자세하게 다룸.

2) 이 용어들은 교육과정상에는 응집성(cohesion)과 통일성(coherence)으로 제시되고 있다. 김지홍(2008, 19)에서는 이들 용어가 드러내는 기본적인 뜻이 적절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그것에 좀 더 부합될 수 있는 용어를 제시하고 있다. 본고는 김지홍(2008)에 따라 응집성은 통사결속으로 통일성은 의미연결로 사용한다.

## 2. 선행연구

본 연구는 학습자들의 문단이라는 단위의 자각 및 그 사용에 대한 자각의 문제를 다룬다. 문단에 대한 심리적 실재를 파악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자들이 문단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하는지에 대한 자각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서혁(1991)은 문장론에 기반한 문단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다만 제한된 학습자들과 요약과정에서 드러나는 문단만을 중심으로 살피고 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줄고(2005, 2007a, 2007b, 2008a) 등은 문단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이론적 부분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제대로 학습자들의 문단에 대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이해와 표현 양상이 부각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남는다.

Christina Hellman(1995), T. Givon(1995), Anthony J. Sanford and Linda M. Moxey(1995), Barbara Seidlhofer and Henry Widdowson(1999), Andrew Kehler(2004) 등은 의미연결(coherence)에 대한 뜻매김에서부터 언어단위에서 의미연결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할 지에 대한 문제를 폭넓게 제시해 주고 있다. 문단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내용은 적지만, 문단이 의미연결의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 받을 수 있어 의의가 있다.

김지홍(2007, 2008)은 문단의 문제를 통사결속(cohesion)을 넘어서 의미연결(coherence)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언어와 언어사용에 대한 자각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II. 연구방법 및 연구가설

### 1. 연구방법

#### 1) 조사 대상 및 수행 영역

본고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문단 중심 읽기와 쓰기의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문단 인식 양상을 추론하는 데 그 초점이 있다. 아울러 조사결과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학습자들의 표집 층위를 동일 학년의 과학고와 인문계 고등학교 학습자들로 폭 넓게 확대하여 실시하였다.<sup>3)</sup>

읽기에서는 문단 순서 재구성과 관련하여 원문에 제시된 문단 순서 해체, 다양한 담화표지 삭제 및 전환, 주제와 관련된 제목의 제시 및 삭제 등이 고려되었다. 이는 읽기시의 문단과 관련된 텍스트 난이도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는다.<sup>4)</sup>

읽기·쓰기 통합 양상의 경우는 문단의 전체적인 관계를 모두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문단을 비워두고 지적하고, 채워 넣게 하였다. 여기에서는 지엽적인 의미관계를 드러내는 문단과 총체적인 의미관계를 드러내는 문단으로 구별하여 학습자들에게 제시하였다. 지엽적인 의미관계를 드러내는 문단은 전체글의 맥락을 좌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기보다 인접한 문단간의 연결 관계에 주요 초점이 주어진 것을 말하고, 총체적인 의

3) 표집층위를 확대하여 실시하였지만, 그 수가 양적 연구에 적합할 정도는 아니었다. 실행 과정에서 많은 수의 학습자들을 포함시켜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연구이기에 부득이하게 질적 연구 기반하에 실행되었다. 국어교육의 현장조사 연구에서 질적인 연구와 양적인 연구의 구별은 한철우 외(2005, 39)에 잘 나타나 있다.

- 4) ① 문단 순서 바꿈+담화표지 추가(거시표지 제시)  
 ② 문단 순서 바꿈  
 ③ 문단 순서 바꿈+제목 삭제함  
 ④ 문단 순서 바꿈+제목 삭제함+담화표지 삭제 및 전환(명시적→명시성이 떨어짐)

미관계를 드러내는 문단은 전체글에서 내용상의 전환이나 마무리 성격을 지닌 문단에 초점이 주어진 문단을 말한다.

읽기와 쓰기 영역 모두 본조사와 확인조사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과학고 1, 2학년 학습자들을 중심으로, 확인조사 일반 인문계고 1, 2학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난이도는 ‘①→④’로 갈수록 높아진다. 실시시기는 대략 2008학년도 1학기 5월~7월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인원은 대략 과학고 1, 2학년 190여 명과 일반계고 150여 명 정도였다.

## 2) 조사자료

조사 자료는 신문 칼럼 두 편을 선택하였다. 주장 일변도의 사실과 달리 설명 요소와 주장 요소가 적절하게 섞여 있어 학습자들이 읽기에 부담이 적고, 이념 편향의 측면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고가 문단 인식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와 표현 양상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단의 수를 적절하게 고려된 것을 선택하였다.)

## 2. 연구가설

본고에서는 읽기와 읽기·쓰기 통합 양상에 관련된 문단 인식 양상으로 두 가지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연구가설 1은 읽기에, 연구가설 2는 읽기·쓰기 통합 양상에 관련된다.

**【연구가설 1】** 글의 제목 및 담화표지의 삭제와 전환이 문단 간 통합에 영향을 줄 것이다.

연구가설 1은 학습자들의 읽기에 관련이 있다. 글의 제목이 주어진다

는 것은 텍스트의 화제를 제시하는 것과 같다. 이는 텍스트에서 드러난 문단을 적절하게 연결해 주는 하나의 단서가 될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텍스트에서 제시될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이 제목에서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제목이 시사하는 바를 고려함으로써 문단간의 통합에 인식력을 더 높일 수 있으리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또한 담화표지를 사용함으로써 학습자들의 문단 간 연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특히 텍스트의 의미짜임을 결정짓는 거시표지들, 가령 마무리 문단이나 내용상의 완전한 전환을 이루는 문단에서 사용되는 표지들은 분명 그 문단의 인식 정도가 여타의 문단보다 높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이 연구가설은 총체적 의미연결(global coherence)과 지엽적 의미연결(local coherence)이 고려되고 있다. 지엽적 의미연결은 인접 문단간의 연결 관계에 초점을 둘 수 있다. 담화표지나 혹은 인접문단간의 특정 의미관계가 주요한 속성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총체적 의미연결은 글의 제목과 밀접한 관련을 맺기 때문에 제목의 제시 여부가 글 전체의 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고려한다. 지엽적 의미연결은 문단간의 연결에 대한 것인데, 가령 첫째, 둘째, 셋째와 같은 명확한 담화표지 대신에, 영형표지, 그리고, 또한 등과 같이 바꾸거나 삭제하여 제시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명시적 담화표지와 다소 그 명시성이 떨어지는 담화표지간의 의미연결에 대한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전체 문단들의 순서 해체, 담화표지, 제목 등으로 간단하게 텍스트의 난이도를 조정하고 이를 학습자들에게 난이도별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로 갈수록 전체 문단을 제대로 파악하는 양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연구가설 2]** 총체적 의미연결 관점에서 고려되는 문단이 더 인식력이 높을 것이다.

본 가설은 문단 읽기와 쓰기가 함께 고려하고 있으며, 아울러 텍스트에서 각 문단이 가지는 의미 속성이나 위계를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다 유의미하게 인식시킬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텍스트에서 일정한 위치의 문단을 비워놓고 학습자들에게 그 문단을 문맥에 맞게 구성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묻고 그 유의미성을 따진다.

문단은 텍스트에서 일정한 의미를 띄게 되며, 이는 문단은 반드시 글의 전체 문맥에 영향을 받을 수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문단의 의미 속성이나 기능에 따라서 단순히 글 전개상 인접한 문단들의 의미관계에 초점을 두는 속성이 강한 것과 텍스트에서 시작을 알리거나 급격한 의미전환을 이루거나, 또는 요약이나 마무리의 기능에 가치를 두는 문단도 있을 수 있다. 전자는 지엽적 의미연결 관계, 후자는 총체적 의미연결 관계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본 가설에서는 이런 문단의 기능이나 의미 속성을 염두해 두고서, 지엽적 의미연결 관계에 있는 문단보다 총체적 의미연결 관계에 있는 문단이 학습자들에게 보다 더 쉽게 처리, 산출될 수 있으리라고 가정하였다.

### Ⅲ. 연구결과 및 교육상 의의

#### 1. 연구결과 논의

##### 1) 읽기 양상 결과 및 논의

우선 아래와 같이 원문의 문단 순서를 해체하여 제시하였다. 해체된 문단 순서를 원문에 맞추어 바로 잡으면 “④→①→⑦→③→⑤→⑧→②→⑥”이 된다. 번호는 해체된 문단들로 구성된 글의 각 문단에 필자가 임의로 붙인 것이다. 해체된 전체글의 문단 순서는 공히 다음과 같이

난이도 구별 없이 동일하게 제시되었다.

사실 최근처럼 한국사회가 20, 30대 젊은 여성들의 삶과 가치관에 주목한 적이 있었나 싶다. “도대체 왜 아이를 안 낳겠다는 거야?” 그리고서는 곧바로 “요즘 여자들이 이기적이라서 그렇다”고 결론까지 내버린다. 과연 요즘 여자들은 과거의 어머니들에 비해 이기적이라서 아이 낳기를 겁은 것일까? ①

많은 한국 남성들은 아내의 일에 대한 욕구와 인간적인 성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지 않는다. 아직도 많은 남성들은 가정의 1차적인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설거지, 청소를 자신의 일이라고 여기며 분담하지 않는다. 직장은 아내가 스스로 자처한 고생길이니 집안일과 아이들 교육에 소홀하다면 그것은 아내의 책임이라고 떠넘긴다. ②

첫째, 임신기간 동안 여성은 아무런 보호대책 없이 혼자 힘으로 견뎌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직장여성들이 임신을 하면 우선 상사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 대놓고 입덧 한번 제대로 할 수 없다. 호르몬이 뒤집어져 졸음이 쏟아져도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내색하지 말아야 한다. 겨우 할 수 있는 정도가 화장실 변기뚜껑을 덮어놓고 몰래 새우잠을 자는 정도로 그 힘든 임신기간을 버텨야 한다. ③

정부가 ‘제1차 저 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시안’이라는 거창한 계획을 발표했다. 마치 개발독재시대에 ‘제 몇 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운운했던 돌진적인 구호를 보는 듯하다. 그러나 정부의 눈물겨운(?) 대책발표를 접한 주변 젊은 여성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냉담’이다. ④

둘째, 왜 아이는 낳은 사람이 길러야 하는지 반문한다. 매일 아이를 둘러업고 새벽 6시부터 분유통 들고 놀이방에 아이 맡기고, 저녁 8시 되기 전에 허둥지둥 아이를 찾기 위해 뛰다 보면 ‘낳기만 하십시오, 국가가 길러드리겠습니다’란 말을 들을 때마다 분노가 치민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당연히 육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남성들에 비해 직장에 몰두할 수 있는 절대 시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⑤

제양에 가까운 출산율 ‘1.08명’. 그러나 시작에 불과하다. 출산율 추락은 가속을 더해 달려갈지도 모른다. ‘안 낳는 것이 그나마 상책’이라는 나름의 자구책에 몸을 숨기고 있는 우리의 딸들이 공동체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공동체가 대답을 내놓아야 할 때다. 특히 우리 기성세대는 정책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정서적, 문화적인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 어쩌면 여성의 사회생활 전반을 통제하고 있는 정서와 불문율로 인해

여성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출산율 1명 이하’를 예고해 왔는지 모른다. 이 땅의 남성들만이 귀 기울이지 않았을 뿐이다. ⑥

펼치는 13년간 각 기업에서 일하는 신입사원부터 과장, 차장 등의 여성들과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거의 매일 만남을 가져왔다. 그들의 눈물겨운 ‘한국에서 여성으로 살기’를 지켜보면서 갖게 된 확신 하나는 추락하는 출산율을 우리 사회는 결코 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⑦

셋째, 집의 남자, 밖의 남자 양쪽 공격으로 여성들은 녹다운 일보직전이다. 남편들은 여성에게 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만 일을 하라고 요구한다. 직장상사들은 결혼이 직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한다. 이러한 상반된 두 남성들의 요구 사이에서 여성들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노력해도 결국은 둘 중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⑧

난이도 수준 ①에서는 제목은 그대로 두었고, 일정 부분 담화표지를 추가적으로 덧붙였다. 원문의 일곱 번째 문단 첫머리에(위의 해체 문단 ②) ‘이처럼’이라는 표지를 삽입하였다. 이는 여섯 번째 문단과의 의미관계를 보다 밀접하게 관련시키기 위해서이다. 또한 원문의 마지막 문단인 여덟 번째 문단위의 해체 문단 ⑥의 “그러나 시작에 불과하다. 출산율 추락은(중략)”의 문장을 가운데 ‘이상의 상황을 고려한다면’이라는 요약성 표지를 삽입하였다.

난이도 수준 ②에서는 문단 순서만 해체하여 그대로 제시하였다. 난이도 수준 ③에서는 문단 순서의 해체에 제목만 삭제하여 제시하였다. 난이도 ④에서는 제목을 삭제하였고, 원문의 일정 담화표지들을 삭제하였다. 원문의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문단(위의 해체 문단 ③, ⑤, ⑧) 머리에 붙은 ‘첫째, 둘째, 셋째’라는 명시적 담화표지를 삭제하고, 대신에 ‘영형표지, 그리고, 또한’이라는 다소 애매한 표지들을 삽입하였다.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이 드러났다.<sup>6)</sup>

6) 두 모집단의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유무를 판단하는 가설검정을 실시했는데, 간단하게 통계적 절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난이도 ①과 난이도 ④의 정답자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는 두 모집단의 모비율이 동일한지 여부에 대한 가설검정을 결과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즉 난이도 ①에 해당하는

&lt;표 1&gt; 읽기 영역 본조사 결과

조사내용 \ 조사대상 (과학교)	1-O		2-O		1-O		2-O	
	1-O	2-O	1-O	2-O	1-O	2-O	1-O	2-O
난이도 수준	①		②		③		④	
조사 인원(명)	23	23	24	23	23	23	23	23
정답자 수(명)	18	17	10	11	10	13	3	4
정답자 비율(%)	78.3	73.9	41.7	47.8	43.5	56.5	13	17.4
수준별 비율(%)	76.1		44.7		50		15.2	

우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수치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학년별로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년별로 난이도 수준에 따라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난이도 ③수준이 오히려 난이도 ②수준보다 정답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본조사 이전에 필자는 문단 순서만 다양하게 해체하여 학습자들에게 문단 순서를 재구성해 보라는 문제를 제시한 적이 있었다. 해체된 문단의 순서가 어떠한 문단의 재구성 양상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었다. 이는 문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 속성은 텍스트의 맥락, 곧 독자 사고 흐름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sup>7)</sup> 문단들이 어떤 순서로 해체되든 크게 상관없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연구가설에서 담화표지의 사용과 문

문제를 풀고 그 중 정답을 맞춘 학생의 비율을  $p_1$ 이라 하고 난이도 ④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고 그 중 정답을 맞춘 학생의 비율을  $p_4$ 라고 하면 본 가설검정은  $p_1 = p_4$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가설검정을 하기 위한 검정통계량 다음과 같다.

$$z = \frac{\hat{p}_1 - \hat{p}_4}{\sqrt{\hat{p}(1-\hat{p})\left(\frac{1}{n_1} + \frac{1}{n_4}\right)}} = \frac{0.76 - 0.15}{\sqrt{0.46 \times 0.54} \sqrt{\frac{1}{46} + \frac{1}{46}}} \\ = 5.86 > 1.96 = z_{0.025}$$

여기서  $\hat{p} = \frac{m_1 + m_4}{n_1 + n_4}$  이며,  $m_1, m_4$ 는 난이도 ①과 ④의 정답자 수를,  $n_1, n_4$ 는 난이도

①과 ④ 문제를 푼 학생들의 수를 나타낸다. 본 가설검정의 검정통계량은 5.87으로 유의수준 5%에서의 기각치 1.96보다 크므로 가설은 기각된다. 즉 난이도 ①과 난이도 ④의 정답률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7) '의식의 지향성'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연결을 결부시켜 본 것이다. 담화표지는 그것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미시표지나 거시표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미시표지는 구나 절의 연결에 사용되는 접속사로, 거시표지는 문단 간 혹은 문단들 간에 사용되는 기능어로 볼 수 있다.<sup>8)</sup>

담화표지의 삭제, 전환, 추가 양상에 따라 정답자수의 비율이 큰 차이로 드러남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난이도 ①의 경우는 대다수의 학습자들이 문단 순서를 올바르게 재구성하였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난이도 ④의 경우 정답자수가 매우 적게 드러남을 볼 수 있다.

④의 경우 명시적인 표지인 ‘첫째, 둘째, 셋째’를 ‘영형표지, 그리고, 또한’이라는 다소 애매한 표지로 바꾸어 제시했는데, 학습자들 대다수가 전체적인 문단 재구성 양상에서 실패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텍스트에서 문단의 의미상의 흐름, 곧 맥락에 의지하는 측면도 있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담화표지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9)</sup>

한편 제목의 삭제 여부에 따라 문단 연결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는 글의 제목이 가지는 의미가 주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단 연결에 단초를 제공하는 요소로는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확인조사의 경우 본조사의 표집 대상 학습자들과 비슷한 분포 양상으로 드러났다. 다만 각 난이도에 따른 정답자 비율은 대체적으로 본조사의

8) 데이빌 누넌 저/김지홍 뒤집, 미발간(1992, 48-52)에서는 미시표지와 거시표지의 사용 문제를 다루면서, 미시표지는 이해를 촉진하지 못하며, 거시표지들만이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본고에서 지향하는 담화표지의 쓰임과 유사한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9) 실제로 난이도 ④에서 학습자들에게 실험을 하기 전에 필자는 ‘둘째, 셋째’를 ‘그리고, 또한’으로 바꾼 것이 자칫 학습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와 ‘또한’의 순서가 확연히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원문의 일곱 번째 문단이 여섯 번째 문단에 대한 부가 설명, 혹은 부연 설명의 문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와 ‘또한’이라는 표지의 영향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보았다. 하지만 결과는 전체적인 문단 구성뿐만 아니라, ‘⑧ → ②’의 순서가 ‘② → ⑧’의 순서로 드러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대다수의 학습자들이 원문의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문단을 인접한 연속선상의 문단으로 파악하고 ‘또한’이 사용된 원문의 여섯 번째 문단을 일곱 번째 문단 뒤로 위치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학습자들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sup>10)</sup>

<표 2> 읽기 영역 확인조사 결과

조사내용 \ 조사대상 (일반계고)	1-○	1-○	2-○	2-○
	난이도 수준	③	②	①
조사 인원(명)	36	35	35	37
정답자 수(명)	12	11	16	1
정답자 비율(%)	33.3	31.4	45.7	2.7

## 2) 읽기·쓰기 통합 양상 결과 및 논의

생략된 문단 지적하기와 문단 형성하기 조사도 본조사와 확인조사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읽기와 쓰기가 혼재된 양상으로 생략된 문단 지적은 읽기로 그 문단을 형성하는 것은 쓰기 양상으로 보였다. 다음은 제시된 원문이다.

외우는 뇌, 생각하는 뇌

암기 능력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침팬지가 화제다. 그러나 이는 놀랄 일이 아니다. 인간의 두뇌 구조는 단순 암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단순 기억에서는 이미 인간이 만든 컴퓨터에 추월당한 지 오래다. 두뇌의 진짜 중요한 기능은 여러 기억을 종합하고 분석하며 추론하는 기능, 즉 생각하는 능력이다. 그런데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조사에서 나왔듯이 우리 청소년들의 실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유아 교육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10) 앞선 방식으로(각주 11) 통계적 절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z = \frac{\hat{p}_1 - \hat{p}_4}{\sqrt{\hat{p}(1-\hat{p})\left(\frac{1}{n_1} + \frac{1}{n_4}\right)}} = \frac{0.46 - 0.03}{\sqrt{0.24 \times 0.76 \sqrt{\frac{1}{35} + \frac{1}{37}}}}$$

$$= 4.30 > 1.96 = z_{0.025}$$

본 가설검정의 검정통계량은 4.30으로 유의수준 5%에서의 기각치 1.96보다 크므로 가설은 기각된다. 즉 난이도 ①과 난이도 ④의 정답률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

인간의 두뇌는 컴퓨터와 다르다. 현대 컴퓨터는 계산을 담당하는 중앙연산장치(펜티엄 등)와 기억을 담당하는 저장장치(하드디스크·메모리 등)가 분리돼 있다. 저장장치는 위치 주소를 이용해 특정한 정보를 저장하고 읽어들이는 매우 단순한 구조로 돼 있어 개개의 기억이 별도로 작동한다.

## ②

반면 인간의 두뇌에서는 계산장치와 기억장치가 혼재해 약 180억 개의 신경세포가 100조 개 정도의 연결고리(시냅스)로 상호 연결됨으로써 계산과 기억을 수행한다. 특정한 정보 저장을 위한 신경세포나 연결고리가 있기보다는 다수의 정보와 다수의 연결고리가 공동으로 관여한다. 하나의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 많은 연결고리가 바뀌어야 하고, 이미 기억된 다른 정보를 조금씩 잃어버리는 특성으로 인해 인간의 두뇌는 단순 암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반면 매일 수백 개씩 신경세포가 죽어도 두뇌 능력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는 조물주나 진화가 사용한 생물 소재와 인간이 사용하는 무기물 소재의 차이로부터 서로 다르게 발전해 온 결과다.

## ③

인간의 두뇌는 위치에 따라 대체로 다른 기능을 담당한다. 즉 시각·청각·언어·기억·계산·감정·추론·행동 등 기능별로 각기 다른 위치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위치와 기능들도 상호 긴밀히 연결돼 있다. 예컨대 다양한 색깔로 표시된 단어의 색을 말하게 하면 ‘빨강’이란 단어를 초록색으로 쓴 경우가 빨간색으로 쓴 경우보다 더 시간이 걸린다(스트룹 효과). 이는 두뇌에서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상호작용을 하는 증거다. 따라서 이미 기억된 정보와 연계하고, 글씨로 쓰고, 그림을 그리고, 크게 읽는 등 감각 및 운동기관과 연계시키는 기억 방법이 효과적이다.

## ④

사회는 인간에게 단순히 기억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후진국에선 단순 기억에 바탕 한 노동력이, 개발도상국에서는 남을 본뜨는 이해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융합해 스스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과학적 사고력이 필요하다.

## 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청소년 과학 실력의 평균 저하는 물론 상위권 학생들의 실력 저하가 더욱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반면 어려서부터 답 하나 고르기에 익숙한 한국인의 탁월한 죽집계 실력과 암기 능력은 토폴 등 국제공

인시험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논리적 사고가 요구되는 논술조차 암기식으로 배우는 실정이다.

⑥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한 가지 능력이 발달하면 다른 능력이 퇴화되기 쉽다. 우리 청소년들의 두뇌가 점점 오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닮아간다. 선진국 교수들은 한국 학생들을 ‘문제를 주면 (외운 실력으로) 잘 풀지만, 스스로 생각해 문제를 찾지는 못하는’ 개발도상국형 학생으로 알고 있다.

⑦

사회는 생각하는 두뇌를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을 탓할 수는 없다. “로마가 융성할 때는 로마인이 원하는 것과 로마가 원하는 것이 같았으나, 쇠퇴기에는 그렇지 못했다.”(시오노 나나미) 외우는 사람보다 생각하는 사람이 더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자.

아래에서 정답 문단 위치는 필자가 원문에서 지엽적 혹은 총체적 속성의 문단이라고 판단한 것을 비워두게 하고 학습자들이 선택하게 한 것이다.<sup>11)</sup> 그리고 학습자들이 지적인 문단을 직접 형성하게 하였다. 학년별로 큰 차이가 없어 지엽과 총체 수준의 문단으로 구분하여 묶어서 그 수치를 제시하였다.<sup>12)</sup>

11) 이 글은 크게 의미상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네 번째 문단까지는 인간의 뇌와 컴퓨터의 차이점을 서술하면서 인간 뇌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까지는 인간의 뇌와 관련시켜 우리 교육체제의 문제점을 전개하고 있다. 다섯 번째 문단이 내용상 급전환을 이루는 곳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마지막 문단은 비유적 내용을 담고 있는 인용 부분과 아울러 단적으로 주제문을 함께 제시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두 문단은 학습자들이 전체 문단에서 비교적 인식의 정도가 여타 문단에 비해 높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에 비하여 네 번째 문단과 일곱 번째 문단은 그 의미 속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네 번째 문단의 경우는 세 번째 문단에 대한 부연 설명에 가깝고, 일곱 번째 문단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사용함으로써 앞 문단과 의미상의 차별성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유사한 내용을 담은 문단이라 할 수 있다.

12) 두 모집단의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유무를 판단하는 가설검정을 실시했으면, 통계치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엽적 의미연결과 총체적 의미 연결간에 문단 인식력에 차이가 있는지는 두 모집단의

<표 3> 읽기·쓰기 영역 본조사 결과

대상(과학교)	1-○		2-○		1-○		2-○	
	1-○	1-○	2-○	2-○	1-○	1-○	2-○	2-○
조사내용								
문단 의미 수준	지엽		지엽		총체		총체	
정답 문단 위치	⑥	③	③	⑥	④	⑦	⑦	④
조사 인원(명)	23	24	23	23	23	23	23	23
정답자 수(명)	1	4	7	2	22	14	13	23
정답자 비율(%)	4.3	16.7	30.4	8.7	95.7	60.9	56.5	100
수준별 정답 비율(%)	10.6		19.6		78.3		78.3	
"	15.1				78.3			
평균점수(쓰기)	3.8				46			

우선 지엽과 총체적 문단 수준에서 결과가 뚜렷하게 대조됨을 알 수 있다. ‘지엽’이라고 상정한 문단은 학습자들에게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그에 비하여 ‘총체’라고 상정한 문단은 대다수 학습자들에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모든 학습자들이 생략된 문단이라고 지적한 문단도 있는 반면에 23명 중에 한 명만이 생략된 문단이라고 지적한 경우도 있다.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문단은 내용상의 급전환을 이루는 다섯 번째

모비율이 동일한지 여부에 대한 가설검정을 결과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즉 지엽적 의미연결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고 그 중 정답을 맞춘 학생의 비율을  $P_1$ 이라 하고 총체적 의미연결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고 그 중 정답을 맞춘 학생의 비율을  $P_2$ 라고 하면 본 가설검정은  $P_1=P_2$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가설검정을 하기 위한 검정통계량 다음과 같다.

$$z = \frac{\hat{p}_1 - \hat{p}_2}{\sqrt{\hat{p}(1-\hat{p})\left(\frac{1}{n_1} + \frac{1}{n_2}\right)}} = \frac{0.78 - 0.15}{\sqrt{0.46 \times 0.54 \left(\frac{1}{93} + \frac{1}{92}\right)}} = -8.62 < -1.96 = -z_{0.025}$$

여기서  $\hat{p} = \frac{m_1 + m_2}{n_1 + n_2}$  이며,  $m_1, m_2$ 는 지역적 의미연결과 총체적 의미연결 문제의 정답자 수를,  $n_1, n_2$ 는 지역적 의미연결과 총체적 의미연결 문제 풀 학생들의 수를 나타낸다. 본 가설검정의 검정통계량은  $-8.62$ 로 유의수준 5%에서의 기각치  $-1.96$ 보다 작으므로 가설은 기각된다. 즉 지역적 의미연결과 총체적 의미연결 정답률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문단이 생략된 위치인 ④번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인 것은 일곱 번째 문단이 생략된 ⑥번 위치이다. 실제 ④와 ⑥의 위치는 수치상으로 극과 극의 위치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굳이 구성주의나 수용미학 등을 거론하지 하지 않더라도, 본조사에서는 학습자들의 능동성이나 창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생략된 문단 쓰기 시에는 원문에 드러난 내용과는 상당히 이질적인 것이 제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이 텍스트의 맥락에 부합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 지엽적 문단이라고 상정한 부분에서는 정답이라고 설정한 위치와 학습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 특히 ⑥의 위치는 제대로 지직한 학습자가 거의 없다. 이는 원문이 가지고 있는 짜임의 문제로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론 학습자들의 잘못된 이해의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조사자가 가설을 세울 때에는 지엽과 총체적 관점에서의 문단간의 격차가 이렇게 심하게 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다. 실제 ⑥의 위치는 학습자들이 거의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렇다면 원문의 일곱 번째 문단인 “그러나 세상에(중략)”는 실제 원문에서 학습자들에게 읽힐 때 거의 인식되지 않거나 의미상 무시되는 문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원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 여섯 번째 문단 다음에 여덟 번째 문단이 바로 온다면 의미상으로 분명하지 않거나 혹은 완벽하지 않은 짜임의 양상으로 드러날 수 있다. 여섯 번째 문단에서 우리 교육의 문제를 제시하는데 이를 보다 명확하게 뒷받침해줄 만한 근거나 부연설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극소수 학습자들만이 생략된 문단 위치로 인식하고 그 내용을 산출하고 있는데, 아래의 예는 ⑥의 위치에서 산출된 문단이다.

이런 단순 암기식의 두뇌발달로는 결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 앞에서 말했듯이 인간의 두뇌는 단순암기에 적합하지 않고, 단순 암기야 컴퓨터가 월등하기 굳이 할 필요도 없다. 중요한 건 인간의 두뇌가 컴퓨터와 다르게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다. 머리밖에 믿을 것이 없는 한국이 세계와 경쟁하려면 단순 암기가 아닌 종합적이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원문에서 네 번째 문단을 생략한 ③의 위치도 지엽적 관점에서의 문단이라고 상정하였다. 역시 소수의 학습자들만이 제대로 생략된 위치를 지적하였다. 하지만 그 위치를 적절하게 지적한 대다수의 학습자들은 원문에서 세 번째 문단에 대한 부가 설명의 문단으로 네 번째 문단을 상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용상 완전히 전환을 이루는 다섯 번째 문단과 결부된 내용으로 서술된 경우가 많았다. 원문의 네 번째 문단 역시 학습자들에게 텍스트에서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는 양상으로 드러났다.

즉 연구가설에서 지엽적 문단으로서 학습자들의 인식 정도가 총체적 문단보다 낮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수용할 수 있다. 다만 몇몇 소수의 학습자들은 세 번째 문단과 관련시켜 내용을 전개시켜 주고 있는데, 아래의 예는 그 유형의 일부이다.

그 차이를 살펴보자면 생물 소재인 인간의 뇌는 기억된 정보를 잃어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컴퓨터의 기억장치는 기억된 정보를 잃지 않는다. 하지만 그로 인해 인간의 뇌는 새로운 생각을 계속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정해진 기억으로 정해진 생각만 한다. 새로운 생각과 정해진 생각, 이러한 차이를 우리 사회에선 어떻게 받아들일까.

위의 학습자는 앞선 내용들을 비교하면서 정리하고 있고, 나아가 다음 문단의 연결고리를 만듦으로써 문단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는 정작 원문의 네 번째 문단보다도 내용상으로는 부족하지만 앞뒤 문단의 내용을 제대로 고려한 더 나은 짜임의 문단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총체적 속성의 문단이라고 상정한 문단들은 학습자들로부터 높은 인식의 정도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내용상 급전환을 이루는 원문의 다섯 번째 문단이 생략된 위치인 ④는 거의 모든 학습자들에게 제대로 인식되고 있다. 그에 비하여 다소 인식의 정도는 떨어지지만 마무리 문단도 절반 이상의 학습자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음을 통계치는

보여주고 있다.

학습자들로부터 산출된 문단은 모든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문단의 완결성과 맥락의 적절성의 관점에서 평가되었다. 문단의 완결성이라 함은 몇몇 문장들이 모여 앞뒤 문단과 구분되는 의미상의 차별성에 초점을 두며 줄 바뀌쓰기나 한 칸 들여쓰기 등의 형식적인 부분도 고려하였다. 맥락의 적절성은 텍스트의 내용과 앞뒤 문단간의 내용 흐름에 비추어 평가되었다.

학습자들이 산출한 문단 내용을 살펴보아도 총체적이라고 상정한 곳에서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맥락과 완결성의 측면에서 양호한 결과로 드러났지만, 지엽적이라고 상정한 곳에서의 내용은 앞뒤 문단간의 내용이 중첩되거나 혹은 맥락상으로 적절하지 못한 부분들이 다수 발견되었다.<sup>13)</sup>

확인조사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드러났다. 본조사의 표집 대상인 학습자들과의 차이점은 전체적으로 총체적 수준의 문단이라고 상정한 곳에서의 정답 비율은 낮지만, 오히려 지엽적 수준의 문단이라고 상정한 곳에서는 정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데 있다. 특히 본조사에서는 ④ 위치에서의 정답비율이 거의 100%에 가까웠는데, 확인조사에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것(65.7%)으로 드러났다.<sup>14)</sup>

13) 학습자들에게 평가 점수로 5점을 제시하였고, 맥락의 적절성과 문단의 완결성에 각각 3점과 2점을 부여하였다. 제출하지 않으면 0점으로 처리하였다. 지엽적 문단이라고 상정한 위치와 총체적 문단이라고 상정한 위치에서 산출된 문단을 국어교육 석사 이상의 국어교사 두 명이 함께 점수를 부여하였다. 전자의 경우 대략 평균점수가 3.8이고, 후자의 경우는 4.6 정도였다. 물론 이 계산은 본조사의 학습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확인조사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는 하지 못하였다.

14) 앞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방식(각주18)으로 통계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z = \frac{\hat{p}_1 - \hat{p}_2}{\sqrt{\hat{p}(1-\hat{p})\left(\frac{1}{n_1} + \frac{1}{n_2}\right)}} = \frac{0.25 - 0.53}{\sqrt{0.38 \times 0.62 \sqrt{\frac{1}{73} + \frac{1}{70}}}} \\ = -3.46 < -1.96 = -z_{0.025}$$

본 가설검정의 검정통계량은  $-3.46$ 으로 유의수준 5%에서의 기각치  $-1.96$ 보다 작으므로 가설은 기각된다. 즉 지역적 의미연결과 총체적 의미연결 정답률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lt;표 4&gt; 읽기·쓰기 영역 확인조사 결과

조사내용	대상(일반계고)			
	1-○	2-○	1-○	2-○
문단 의미 수준	지엽		총체	
정답 문단 위치	③	⑥	⑦	④
조사 인원(명)	36	37	35	35
정답자 수(명)	11	7	14	23
정답자 비율(%)	30.6	18.9	40	65.7
수준별 정답 비율(%)	24.7		52.9	

## 2. 교육상 의의

이상 읽기와 쓰기에서 드러난 학습자들의 다양한 문단 인식 양상의 결과를 통해, 문단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 교육상 의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고는 제목과 담화표지를 문단 간 연결과 관련시켜 보았다. 드러난 결과에서, 제목은 문단의 연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담화표지의 삭제, 전환, 추가는 문단의 연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단의 연결 양상에 기능어로 작용하는 다양한 담화표지가 문단 연결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담화 연결과 관련된 미시표지나 거시표지 등의 담화표지가 문단의 연결에 매우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으며, 기능적으로 혹은 형식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어가 매우 밀접하게 문단의 의미 형성 기제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한 문단의 전체 속성으로서 보다는 텍스트의 부분이라는 관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문단이 주요한 의미단위라면 이는 의미단위의 정확한 연결에 담화표지가 주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이는 각 문단에 위치한 담화표지가 문단의 심리적 실제, 혹은 문단의 언어 단위로서의 속성성에 기여를 하고 있음을 부각시켜 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읽기나 쓰기 교육에서 문단은 주로 수사학적 규범론의 관점에 서 하나의 정형화된 단위로 주로 언급되며, 통일성, 일관성, 강조성에 속성에 맞춘 한 문단 형성에 초점이 주어져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특정 영역의 한정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문단의 접근 방식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아울러 읽기나 쓰기 교육에서 학습자들이 문단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다 하겠다.

둘째, 문단쓰기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부각시켰다는 점이다. 종전의 연구들이 대부분 텍스트를 도외시 한 채 어떻게 하면 하나의 완벽한 문단을 쓸 수 있는지에 그 초점이 있어 왔다. 이는 입말의 의미덩이를 연구하는 수사학의 연구 경향이라 하겠다.

본고에서는 텍스트에서 그 의미 속성이 다르다고 가정한 문단을 생략한 채 학습자들로부터 생략된 문단을 형성해 보게 하였다. 결과는 총체적 문단이라고 가정한 문단이 지엽적이라고 가정한 문단보다 학습자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풍부하게 처리, 산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쓰기의 결과로 도출된 문단의 양상에서 모든 문단이 정형화된 내용과 형식 기제로 형성되기보다는 다양한 언어표지와 내용 맥락이 고려된 문단이 도출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각 문단이 내용의 완결성이나 맥락의 적절성에서 많은 차이를 드러냄을 발견할 수 있다.

쓰기교육에서 문단 쓰기는 중요한 과제로 여겨져 왔었다. 하지만 정작 기존의 문단 관련 쓰기연구에서는 문단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형식상의 다양성을 포괄하지 못한 채, 매우 제한된 이론적 부분만으로 접근해 왔다. 본고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문단 쓰기에서 텍스트를 감안하고, 아울러 각 문단이 드러낼 수 있는 기능이나 의미상의 차별성까지 고려하여 학습자들에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끌어내 보았다는 의의를 드러낸다.

## IV. 마무리

본고는 학습자들의 문단에 대한 의미연결 양상 문제를 다루었다. 학습자들의 문단에 대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반응 양상을 고려하기 위해 텍스트의 관점에서 각 문단의 의미양상을 고려할 수 있는 연구방법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조사는 예비조사, 본조사, 확인조사로 실시되었고, 고등학교 1, 2학년 학습자들의 표집 층위를 언어 수행 수준에 따라 최대한 확보하려 하였다. 연구조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단 순서의 해체, 제목 및 담화표지의 삭제, 수정, 전환의 문제가 문단 순서 재구성 양상에 미치는 양상은 제각각 차이가 있었다. 우선 문단 순서의 해체만으로는 문단 순서 재구성 양상에 유의미한 결과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원문의 문단 순서가 어떤 양상으로 그 순서가 해체되던 학습자들에게는 비슷한 양상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말해주는 결과라 하겠다.

제목의 삭제는 문단 순서 재구성 양상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본고에서 사용한 원문이 비문학적이고 주장하는 글에 한정되어 있는 점이 한계일 수 있지만, 본고에 사용된 글에서 제목은 거의 문단 순서의 재구성 양상에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담화표지의 삭제, 수정, 전환은 문단 순서의 재구성에 매우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특히 텍스트에서 핵심적인 기능어로 볼 수 있는 담화표지는 문단 순서의 재구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학습자들이 담화표지의 사용과 문단의 연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읽기 및 쓰기 통합 양상에서는 지엽적, 총체적 문단이라고 상정한 문단을 생략하고 이를 학습자들에게 지적하고 구성하게 했다. 결과는 총체적이라고 상정한 문단이 학습자들의 높은 인식 양상으로 드러났는데,

특히 내용상 전환의 역할을 하는 문단의 인식 양상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쓰기에 드러난 문단의 내용과 형식면에서도 지엽적인 것보다는 총체적인 문단에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문단 쓰기시에 정형화되거나 규범화된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문단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나 기능상의 속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며 반드시 텍스트를 상정해서 문단 쓰기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하지만 본 연구는 문단의 기능이나 의미의 정형성에 대한 모든 부분을 포괄했다고 하기보다는 다분히 부분적인 접근만을 시도한 결과에 불과하다. 또한 제한된 학습자와 수로 연구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에서 동 학년의 모든 학습자들의 문단 인식 양상이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좀 더 많은 표집대상을 확보하고, 문단이라는 단위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방법들이 계발되어야 할 것이다.\*

---

\* 본 논문은 2008. 6. 26. 투고되었으며, 2008. 7. 5. 심사가 시작되어 2008. 7. 31.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김지홍(2007), “언어와 언어 사용에 대한 자각”, 『국어문학』 42호.
- 김지홍(2008), “언어 산출과 처리의 심리적 과정”, 한글학회 진주지회 발표문.
- 남가영(2006), “국어 인식활동의 경험적 속성”, 『국어교육학연구』 제27집, 국어교육학회.
- 서중훈(2005), “즐글 단락 재구성하기 양상”, 『배달말』 36, 배달말.
- 서중훈(2007a), “담화연결표지 사용을 통한 문단 인식 양상”, 『국어교육』 123, 한국어교육학회.
- 서중훈(2007b), “요약자료를 통해 드러난 고1 학습자들의 의미문단 파악 양상”, 『우리말 연구』 21, 우리말학회.
- 서중훈(2008a), “수형도를 활용한 문단 관계 인식 양상”, 『국어교육』 125, 한국어교육학회.
- 서중훈(2008b), “문단 연구양상 및 지도방법 연구”, 『한말연구』 22, 한말연구학회.
- 서 혁(1991), “단락·문장의 중요도 파악과 단락의 주제문 작성 능력이 요약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 석사논문.
- 한철우 외(2005), “표현·이해 교육 연구의 방향과 과제”, 『국어교육학연구』 제22집, 국어교육학회.
- David Nunan(1992), *Research Methods in Language Learning*, Cambridge.
- Gert Rickheit and Christopher Habel 편(1995), *Focus and Coherence in Discourse Processing*, de Gruyer.
- Laurence R. Horn and Gregory Ward 편(2004), *The Handbook of Pragmatics*, Blackwell.
- M.A. Gernsbacher & T. Givon 편(1995), *Coherence in Spontaneous Text* : John Benjamins.
- Walter Kintsch(1998), *Comprehension*, Cambridge.

<초록>

문단 연결에 대한 인식 양상

-고1, 2 학습자들의 문단 읽기와 쓰기를 중심으로-

서중훈

본고는 고1, 2 학습자들의 문단 연결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의미연결의 관점에서 다루었다. 문단과 직결된 두 가지 연구가설을 제시하고, 학습자들로부터 드러나는 읽기와 쓰기의 결과 양상을 논의하였고, 그 교육적 의의를 도출하였다.

읽기와 관련된 문단 연결 양상에 있어서 담화표지, 특히 거시표지는 매우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하였지만 제목은 그렇지 못하였다. 읽기·쓰기 혼합 양상에서는 총체적 의미연결의 관점에서 유도된 문단이 지엽적 의미연결의 관점에서 유도된 문단보다 인식 양상이 훨씬 더 높게 드러났다.

읽기와 쓰기교육에서 문단 연결은 의미연결의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논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표집층위와 연구방법의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본고는 이런 한계를 감안하며, 문단을 중심으로 한 의미연결 연구의 과정상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핵심어】** 의미연결, 문단, 읽기·쓰기, 텍스트, 담화표지

<Abstract>

## Some Aspects Cognition of Paragraphs Connection

—Highschool 1st and 2st graders' cases in their reading and writing—

Seo, Jong-hoon

This paper treated some aspects cognition of paragraph connection in the coherence view. It was presented two study assumptions, discussed result aspect which presented from reading and writing of learners, and guided education meaning.

Above all macro markers of discourse markers are acted meaningfully in reading. But title is not acted meaningfully. Paragraph of global coherence is cognized more highly than paragraph of local coherence.

Paragraph connection of coherence view is important in the reading and writing education. Specially more sampling and study method improvement are needed to ensure reliability and validity. This paper accepts the limits. But paragraph study as the process of coherence is meaningful.

**【Key words】** coherence, paragraph, reading · writing, text, discourse-marker